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청과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청과장학생들은 오후 1시 세미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창희 씨와 김미진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25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 및 냉방기기의 전원을 꼭 꺼 주세요.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안경아 김미혜 김윤수 민경배
 8/26 식 당 봉 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류정옥 이재문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 유상진 주경진 황영준 김영아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박상규 하진술 신인경
 새 교 우 : 이승진(7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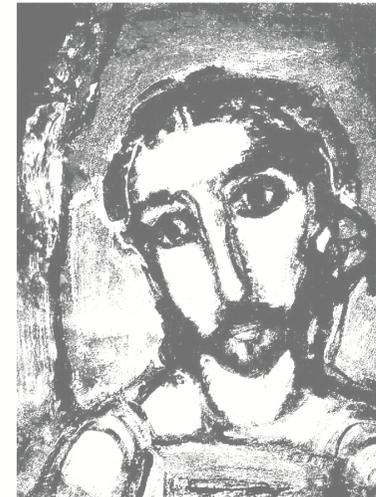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어 한여름의 폭염으로 지쳤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삶의 열기로 지친 그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고된 영혼을 위로하며 새 힘을 북돋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영토분쟁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감정적 배타주의를 넘어서게 해 주시고, 모든 나라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상근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종술 박미란 김필순 김현동
 박권동 박병구 김정애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양상철 박재란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이광용 형인순 이국노 김민화 이봉배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전희수 조병억 조정연
 조병주 차혜심 노미향 최선미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선희 황영준 LK 무명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정진 김종락 김종술 박미란 김중수
 이순정 김철수 유영남 김혜정 박병구 김정애 박상직 박성호 박영신
 박정호 박종현 송희원 안정숙 안정현 이승진 이유일 김미희 정원석
 김현영 최재욱 이수정 최현선 무명2

녹색꿈헌금:

박홍재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홍순구 안홍숙 무명2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윤정덕 정영선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심	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무더위

공석진

완벽하게/ 세상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다리에/ 잔뜩 힘주고/ 버티주던 빌딩들도

한번 건들면/ 폭발할 것 같던/ 충혈된 시선들도

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좋다는/ 가진 자들의 호들갑도

이젠/ 아무런 저항 없이/ 백기를 들고 말았다

사람들의/ 멍한 무기력

그 사람들 앞에/ 살아보려는/ 의지를 불사르는/ 결인의 구걸

버스터미널 한쪽 구석/ 낡은 선풍기

탈탈탈/ 의미 없이 돌아가고

지쳐 널브러진/ 사람들의 의식에/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나기에 대한 꿈은/ 정녕/ 없는 것이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며 사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잔치에 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운 행장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잔치에 임하십시오.

아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자리를 거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그 잔치가 주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갈라디아서 / 이범석 목사 기도 : 장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곽권희 권사 이영란 집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익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24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재물을 쓰는 데 재미를 붙여 좋은 집에 아름다운 가구들을 들여놓고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진 재물을 지키는 데 재미를 붙여 허름한 집 안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운 금고를 감춰놓고 책상에 앉아 돈 세는 맛으로 살지요.

어느 부자가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앞의 부자지요. 자기 돈 쓰는 것을 즐기는 부자는 자주 사람들을 초대하여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열어놓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려는 순수한 열망에 젖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아둘 줄만 아는 구두쇠는 그 가슴이 어둡게 닫혀 있어서, 그리로 밝은 빛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초대한다면, 그를 회개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쇠는 자기 집안이나 가슴에 누구를 초대하는 법이 결코 없지요.

29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집은 그 안에 몸담아 사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물건입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은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옷은 낡아서 헤지거나 나보다 험벗은 이에게 벗어줄 때까지 하느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뚱이는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몸은 내가 태어나던 날 하느님께서 빌려주셨다가 내가 죽는 날 도로 가져가실 물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구성하여 만들어내는 머리는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내 생일에 하느님께서 빌려주셨다가 죽을 때 도로 가져가실 물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진 걸까요? 도대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기는 한 겁니까? 있지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성장하고 내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덕목들,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사랑을 가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온유함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온유함을 가진 거지요.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것들로 하늘나라가 가득 차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이 모든 덕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 영혼도 물론 내 것이지요.

33

자기는 물질 소유에 아무 관심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세속 권력에도 관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비천한 일터에서 그저 그런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세속의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성품이 다른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인의 성품을 보여주려고 무슨 행동을 따로 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는 줄 알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오해하여 헐뜯거나 비난하면 맹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사납게 자신의 명망을 지킵니다. 명망을 포기하는 것에 견주어 재물이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이지요.